새판짜기 모두 공감…'주도권'엔 이견

■ 양형일의원 〈열린우리〉

"한나라 집권 저지위해"

■ 염동연의원〈열린우리〉

"헤쳐모여식 신당 필요"

■ 정동채의원〈열린우리〉

"민주세력 대연합으로"

■ 지병문의원〈열린우리〉

"정책 중심 연대 필요"

■ 강기정의원〈열린우리〉

"정계개편 속단은 일러"

■ 김태홍의원〈열린우리〉

"주도권 다툼 없어야"

■ 김동철의원〈열린우리〉

"反한나라 세력 모여야"

■ 김성곤의원〈열린우리〉

"우리당 창당정신 승계"

■ 주승용의원〈열린우리〉

"내년 상반기중 현실화"

■ 이상열의원〈민주〉

"정기국회 이후 급물살"

정계개편 어떻게…

광주·전남 국회의원 19명 설문조사

정계개편에 대해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여야를 뛰어넘어 대부분의 의원들이 '헤쳐모여식 신당 창당' 형식의 정계개편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 서갑원, 강기정 의원 등 3~4명의 여당 의원들은 '국민적 합의' '상황의 유동성'등을 들어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또 민주당과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정계개편의 주도권 문제를 놓고 이견을 보여 추후 정계개편 과정에서의 상당한 진통을 예고했으며, 노무현 대통령이 정계개편에 간여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즉 정계개편이란 총론에는 대다수 동의했지만 방법론에 있어서는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16명 "민주세력 대통합 한나라 집권 막아야"

"盧대통령 이선 후퇴 결단하면 급물살 탈 것"

"분당세력 배제" "창당정신 계승" 진통 예고

◇한나라당 집권 저지를 위한 정계개편=광주·전남지역 여야 의원들 가운데 3분의 2가 넘는 16명의 의원들이 현재 여당으로는 사실상 정권 창출이 어렵고 한나라당의 집권 저지를 막을 수 없다는 점에서 민주세력 대통합을 위한 정계개편이 불가피하다는 의중을 나타냈다.

열린우리당 양형일 의원은 "민주세력이 분열된 현 상황에서는 한나라당의 집권을 저지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냈으며, 김동철 의원(광주 광산)은 "내년 대선은 한나라당대 반 한나라당 구도로 치러진다는 점에서 정계개편은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최인기 의원도"보수 회귀 세력인 한나라당의 집권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열린우리당 정동채 의원은 "보수 세력에 정권을 넘겨줘 역사를 후퇴시켜서는 안된다"며 정계개편의 불가피성을 토로했다.

열린우리당 염동연 의원도 "한나라당의 집권을 막고 민주세력의 정권 창출을 위해 정계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으며, 민주당 이상열 의원(목포시)은 "민주세력 분열로 한나라당의 집권을 막기 어렵다는 점에서 정계개편은 필수요건"이라고 주장했다.

여기에 한화갑, 김효석, 우윤근, 김성곤, 신중식, 김태홍, 유선호, 이낙연, 지병문, 주승용 의원 등도 명분은 조금씩 다르지만 한나라당의 집권을 막고 새로운 정치 질서를 확립을 위해서는 정계개편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 서갑원, 강기정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은 정계개편은 국민적 동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점에서 아직 정계개편의 불가피성을 거론하기는 이르다는 목소리와 함께, 대선을 의식한 인위적이고, 대선 주자를 중심으로 한 편가르기 형식의 정계개편은 지양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정계개편 방식=정계개편에 동의하는 대부분의 의원들은 헤쳐모여식 신당 창당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의 당대 당 통합은 사실상 어려운 점이 많으므로 모든 민주세력이 기득권을 버리고 정권 창출을 위해 한 자리에 모여야 한다는 것이다.

열린우리당 전남도당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유선호 의원은 "현재의 상황에서 모든 민주세력이 기득권을 버리고 대통합을 이뤄야 한다는 것이 시대적 요구"라며 "민주세력이 여기서 단합하지 못하고 분열, 한나라당에 정권을 넘겨준다면 국민의 정부부터 이뤄져 왔던 모든 성과가 다 물거품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계개편 주도권=지역 국회의원들은 정계개편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지만 정계개편의 주도권 문제에서는 상당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우선 한화갑 민주당 대표는 "정계개편은 민주당 주도로 이뤄져야 하며 헤쳐모여식 신당 창당이 이뤄진다 하더라도 민주당 분당에 앞장섰던 정치인들은 배제돼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나타냈다. 최인기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민주당 주도로 정계개편이 이뤄져야 하며 민주당 분당 세력은 반성의 정도에 따라 선별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낙연 의원은 "민주당의 분당은 민주세력의 분열과 약화, 한국정치의 보수 편향을 초래했으며 이를 바로잡는 것이 정계개편의 출발"이라며 "여당은 정계개편 주도권 확보 욕심을 버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반해 열린우리당 김성곤 의원은 "열린우리당의 창당 정신을 승계하는 신당 창당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으며, 강기정 의원은 "정계개편은 우리당 정신이 반영돼야 하며 열린우리당이 중심이 되는 민주대연합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무현 대통령의 결단=노무현 대통령이 정계개편과 관련, 적절한 결정을 내려줘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열린우리당 주승용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이 정치 일선에서 한발 물러나는 등 결단을 한다면 정계개편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밝혔으며 김동철 의원은 "정계개편은 노무현 대통령의 퇴임 이후의 정치상황이기 때문에 노 대통령의 신당 참여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낙연 의원은 "노대통령이 새로운 정치질서를 형성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밝혔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 광주·전남 지역구 국회의원 정계개편 설문조사

	정계개편 여부 및 이유	정계개편 방식	시기
양형일(열린우리·광주 동)	한나라당 집권 저지 위해 불가피	민주개혁미래세력 대통합	내년 2월께
염동연(열린우리·광주 서갑)	정권재창출 위해 필요	헤쳐모여식 신당창당	늦어도 내년 초
정동채(열린우리·광주 서을)	수구세력 집권 저지 위해 불가피	민주개혁세력대연합	각당 대선 후보 선출 시점
지병문(열린우리·광주 남)	현 상황 불가피	기득권 포기 제3지대 헤쳐모여식	내년초
강기정(열린우리·광주 북갑)	속단하기 어렵다	우리당 창당정신 반영 속 민주개혁세력 정권 재창출 방식	시기유동적
김태홍(열린우리·광주 북을)	현 상황 정계개편 불가피	민주세력 대통합	내년초
김동철(열린우리·광주 광산)	내년 대선 한나라당 대 반 한나라당 간 대결로 정계개편 불가피	반 한나라당 대통합 신당 창당	내년 봄
김성곤(열린우리·여수갑)	국민통합 정치력 확보 위해 불가피	우리당 창당정신 계승하는 신당창당식	내년 상반기
주승용(열린우리·여수을)	독자적 정권창출 어렵기 때문에 불가피	신당 창당	내년 상반기
이상열(민주·목포)	중도민주세력 정권 창출위해 불가피	헤쳐모여식 신당창당	내년 초
서갑원(열린우리·순천)	정계개편 확언 어렵다	정치세력·국민요구 충족안돼	
최인기(민주·나주)	한나라당 집권 막기 위해 불가피	민주당 중심으로 민주·실용·중도세력 대통합	내년 3~4월
우윤근(열린우리·광양·구례)	한국의 새로운 도약위해 불가피	보수·좌파 극단주의 배경, 민주세력 대통합	시기는 유동적
유선호(열린우리·장흥·영암)	민주화세력의 통합 위해 불가피	헤쳐모여식 신당창당	내년 봄
김효석(민주·담양·장성·곡성)	새로운 정치를 위해 불가피	극보수·극진보 제외, 미래 비전 창출하는 방식	내년 초 마무리
한화갑(민주·신안 무안)	새틀 짜기 위해 불가피	민주당 중심또는 민주당의 정통성과 중도실용주의에 기초한 신당 창당	내년 봄
이낙연(민주·함평 영광)	보수 편향 잡기 위해 불가피	민주당과 열린우리당 중도세력, 고건 전 총리, 각계전문가 참여속 신당창당	내년 2~3월
이영호(열린우리·완도 강진)	거스를수 없는 대세	국민공감대와 정당간 정책연대 방식	불확실
신중식(민주·고흥 보성)	현 정치구도상 불가피	건강한 중도세력, 고건 전 총리 통합	내년 초

■ 서갑원의원〈열린우리〉

"국민 요구 있어야 가능"

■ 최인기의원〈민주〉

"민주 중심 중도세력 통합"

■ 우윤근의원〈열린우리〉

"구체적 시기는 유동적"

■ 유선호의원〈열린우리〉

"민주세력 통합이 대세"

■ 김효석의원〈민주〉

"극단적 세력은 빼고"

■ 한화갑의원〈민주〉

"국가·정치발전 새틀 위해"

■ 이낙연의원〈민주〉

"내년 2월까지 통합 필요"

■ 이영호의원〈열린우리〉

"국민 공감대 기반으로"

■ 신중식의원〈민주〉

"고건 前총리 함께해야"

가장 좋은 약은 사랑입니다.
KUKJE 국제약품
www.kukjepharm.co.kr

사람이 자연을 사랑한다지만...
오히려 자연은 존재하는 것 만으로도
사람에게무한한 사랑을 베풀고 있습니다.

정성스레 쌓아올린 돌탑 앞에 작은 소원을 말해봅니다.
그 소원이 꼭 이루어지진 않지만
소원을 비는 정성만으로도 사랑을 주는것.
그것이 국제약품이 추구하는 사랑입니다.

가장 좋은 약은 사랑입니다.

광고심의필 : 878-0100